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江原日報	04면	김 지사 재산 38억… 1년 전보다 8억8천만원 ↓	1
강원도민일보	03면	시장·군수 평균 11억500만원… 김 지사 38억6000만원	2
강원도민일보	22면	"원주 지역 가치 높이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자"	3
강원도민일보	11면	채수남 원주예총 회장 취임	3
江原日報	13면	고성군산림조합 신청사 개청	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뒤늦은 세계유산조례 조기 정착을	5
江原日報	21면	“종합 3위 달성 쾌거 5년 연속 흥경기서 이어가자”	6
江原日報	21면	[동정] 강정호 도의원(속초)	6
강원도민일보	06면	정부 "첨단산업 지원 강화" 강원도 부푼 꿈	7
강원도민일보	14면	'단돈 1000원' 삼척시티투어 내달 첫 선	7
江原日報	08면	"사과 하면 이젠 강원" 정부 집중 육성	8
江原日報	14면	동해시 노후 해안교 보행로 재설치	9
江原日報	15면	영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160명 투입	9
강원도민일보	05면	정부부처 엇박자 행정에 '서핑성지' 양양 명성 위기	10
강원도민일보	10면	춘천시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생길까	1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 인구 감소, 심상치 않다	11
江原日報	19면	[사설] ‘강원형 반도체 육성 협약’ 성과 내는 것이 중요	12

江原日報

◇강원도 지자체장 재산 변동 내역

성명	현재가액	증가액
김진태 지사	38억6,015만원	-8억8,179만원
신경호 교육감	3억5,849만원	-1,324만원
권혁열 도의장	17억6,987만원	+3억6,987만원
김명선 행정부지사	8억5,040만원	+8,437만원
정광열 경제부지사	51억9,863만원	+1,890만원
육동한 춘천시장	14억3,912만원	+6,365만원
원강수 원주시장	8억9,243만원	+4,687만원
김홍규 강릉시장	55억800만원	-5억4,031만원
심규언 동해시장	6억8,937만원	+3,732만원
이상호 태백시장	1억2,084만원	-6,190만원
이병선 속초시장	4억6,436만원	+1,463만원
박상수 삼척시장	1억7,437만원	+58만원
신영재 홍천군수	6억9,285만원	+8,256만원
김명기 횡성군수	6억1,009만원	+1억7,223만원
최명서 영월군수	11억4,663만원	+7,937만원
심재국 평창군수	14억5,389만원	-1억5,505만원
최승준 정선군수	6억5,972만원	+4,846만원
이현종 철원군수	7억3,609만원	+3,080만원
최문순 화천군수	3억4,247만원	+1억2,430만원
서용원 양구군수	33억4,570만원	-1,222만원
최상기 인제군수	5억7,368만원	+1억8,885만원
함명준 고성군수	4억7,454만원	+3,120만원
김진하 양양군수	5억7,339만원	+3,248만원

2024년 03월 28일 (목)

사회 04면

김 지사 재산 38억... 1년 전보다 8억8천만원 ↓

도내 공직자 재산 공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재산이 1년간 8억원 이상 감소한 38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김 지사는 38억6,015만원을 신고했다. 1년 전에 비해 8억8,179만원이 감소했다. 본인 소유의 양구와 경북 성주 소재 담,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차량은 2023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2015년식 아반떼MD를 보유하고 있다.

신 교육감 3억5,849만원~ 권혁열 도의장 17억6,987만원
18개 시장·군수 중 김홍규 강릉시장 55억 최고 '재력가'

신경호 도교육감은 지난해 3월 발표 당시보다 1,324만원 감소한 3억5,849만원을 신고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지난해보다 3억6,987만원 늘어난 17억6,987만원을 보유했다. 또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8억5,040만원,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51억9,863만원을 신고했으며 지난해보다 재산이 다소 증가했다.

18개 시장·군수 중에는 김홍규 강릉시장이 55억80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다만 지난해보다는 5억4,031만원이 감소했다. 이어 서용원 양구군수가 33억4,570만원, 심재국 평창군수는 14억5,389만원, 육동한 춘천시장 14억3,912만원, 최명서 영월군수 11억4,663만원, 원강수 원주시장 8억9,243만원, 이현종 철원군수 7억3,609만원, 심규언 동해시장 6억8,93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상기 인제군수, 김명기 횡성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는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었다.

도의원 중에서는 김기홍 부의장이 46억9,524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에 비해선 재산이 4억원 이상 줄었다.

도지사, 도의원 및 시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공개내역은 28일부터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https://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79명(도공직유관단체장 8명, 시·군의원 171명)의 평균 신고재산은 8억8,984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기영기자 answer07@**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8일 (목)

정치 03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재산 내역 단위/천원



도의원	재산액	증감액	도의원	재산액	증감액	도의원	재산액	증감액
권혁열	1,769,872	369,761	박대현	30,906	-83,522	이지영	60,213	-94,804
강정호	192,239	39,618	박윤미	396,383	45,949	이한영	189,203	80,380
김기철	379,360	-298	박찬홍	925,368	56,869	임미선	2,377,764	179,571
김기하	2,045,213	-47,126	박호균	1,754,234	34,178	전찬성	2,620,541	101,891
김기홍	4,695,242	-475,634	심영곤	992,322	110,424	장재웅	339,149	28,518
김길수	809,596	54,070	심오섭	1,480,464	17,980	조성운	-927,872	-1,654,338
김시성	915,429	96,165	양숙희	578,317	-86,514	자광천	126,379	-20,703
김용래	456,232	49,037	엄기호	37,932	23,276	진종호	184,062	-6,668
김용복	210,762	-166,322	엄윤순	3,356,407	116,625	최규만	454,896	65,272
김정수	1,566,055	-717,082	윌미희	2,090,795	129,716	최승순	1,796,022	-337,320
김희철	1,543,670	399,492	원재용	3,763,725	-238,609	최재민	-8,710	25,908
류인철	406,527	25,655	유순욱	288,859	257,043	최재석	3,429,759	106,849
문관현	4,304,267	457,890	윤길로	292,175	68,894	최종수	1,309,208	-72,386
박관희	215,849	35,649	이무철	903,587	-77,201	하석균	2,048,899	509,485
박기영	1,498,076	102,254	이승진	1,389,676	101,721	한창수	307,020	19,216
박길선	306,346	-73,507	이영욱	859,288	-144,598	홍성기	3,579,421	-578,096

강원특별자치도 단체장·정무직 공무원·유관단체장

단위/천원	이름	재산액	증감액
	김진태 도지사	3,860,152	-881,790
	김명선 행정부지사	850,405	84,377
	정광열 경제부지사	5,198,630	18,904
	신경호 도교육감	358,497	-13,241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	597,386	56,181
	박동주 감사위원장	711,492	44,216
	김종관 자치경찰위 사무국장	809,425	59,665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3,213,404	144,206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	2,097,711	-169,387
	권오광 강원경제진흥원 원장	1,170,991	65,939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680,873	37,994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516,188	33,593
	김종욱 강릉의료원 원장	2,760,475	88,323
	권태형 원주의료원 원장	2,400,328	-1,365,613
	유왕식 속초의료원 원장	1,719,432	-3,454

18개 시장·군수 재산내역 단위/천원

	재산액	증감액
육동한 춘천시	1,439,123	63,652
원강수 원주시	892,436	46,874
김홍규 강릉시	5,500,808	-540,310
심규언 동해시	689,379	37,326
이상호 태백시	120,845	-61,906
이병선 속초시	464,368	14,634
박상수 삼척시	174,376	586
신영재 화천군	692,851	82,565
김명기 횡성군	610,093	172,237
최명서 영월군	1,146,635	79,395
심재국 평창군	1,453,898	-155,052
최승준 정선군	659,728	48,460
이현중 철원군	736,093	30,805
최문순 화천군	342,476	124,300
서흥원 양구군	3,345,707	-12,220
최상기 인제군	573,580	188,850
함명준 고성군	474,546	31,204
김진하 양양군	573,392	32,483

시장·군수 평균 11억500만원... 김 지사 38억6000만원

신 교육감 3억5800만원 신고

김홍규 시장 지자체장 중 최고

도의원 48명 평균 12억1500만원

김홍수 강릉시의원 115억원 ↑

기초의원 46명 수십억원 자산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가 28일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실태 결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재산 신고액이 38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9명의 평균 재산액은 23억8800만원, 시장·군수는 11억5000만원, 강원도 의원은 12억1500만원, 시·군의원 및 도 공직유관단체장은 8억8900만원이었다.

신고내역은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 및 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 지사, 강남 아파트 등 38억원 김 지사는 강남 대치동 아파트 22억 등 총 38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또, 양구군과 경북 성주군 땅 8700만원, 예

금 14억원 등을 갖고 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경기 화성시 아파트 3억원 등 8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51억9800만원을 신고했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배우자 소유 부산 수영구 아파트와 경북 청도군 숙박시설 등 21억4300만원을 갖고 있다.

신경호 도 교육감은 춘천 퇴계동 복합건물 3억5400만원 등 3억5800만원을 신고했다.

도 공직유관단체장 8명 중 예선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의 재산 신고액이 32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종욱 강릉의료원장 27억원,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24억원,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 20억원 등이다. 김종관 자치경찰위 사무국장은 8억원을 신고했다.

■강릉시장, 숙박시설 39억원 보유 도내 18개 시장·군수의 재산신고 평균액은 1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신고액 대비 1021만원 늘었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55억원으로 최고 자산가다. 김시장은 포남동 숙박시설 39억7400만원이 있다. 또, 지난해 포남동 땅 6억원을 매입했다. 이어 서

흥원 양구군수는 예금 19억원, 춘천 석사동 아파트 등 건물 11억9700만원 등 33억4500만원을 신고했다.

■땅 49억원·주식 25억원 도의원 48명의 재산액 평균은 12억1500만원이었다. 김기홍(원주) 의원은 원주 무실동 등 땅 8필지 49억원을 갖고 있다.

이어 문관현(태백) 의원이 주식 25억7300만원 등 4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타이머넥션 비상장주식 등 소유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직무관련성 '있음' 판정을 받았다.

문 의원은 지난 2월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사임한 뒤, 재산사정규를 준비 중이다. 또, 원재용(원주) 의원이 원주 무실동 산 1필지 29억원, 홍성기(홍천) 의원이 홍천 두촌면 땅 44억원을 신고했다.

도의원 79%는 땅을 소유하고 있고, 93%는 건물 소유자다. 도의원 41%(20명)는 자녀, 부모 등 재산 고지서를 부했다.

■강릉시의원, 가상자산 투자 덕에 115억원 증가

김홍수 강릉시의원이 총 122억

1100만원을 신고해 시·군의원 가운데 1위였으며, 전년보다 115억원이 늘었다. 김홍수시의원은 27일 본지 통화에서 "7~8년 전에 산 가상자산이 올해부터 신고내역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명애 속초시의원 64억8400만원,

최선남 양양군의원 50억2100만원, 신동성 인제군의원 43억원, 허병관 강릉시의원 40억원, 김정미 양구군의원 32억원 등 기초의원 171명 중 수십억원대 자산가는 46명(26.9%)이었다.

이철화·김덕형·김현경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8일 (목)

인물 22면

“원주 지역 가치 높이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자”

굿리더 아카데미 원주권 입학식
10기 과정 강의·워크숍 등 진행
“미래 이끌 특별한 리더 성장”

강원도민일보 부설 굿리더아카데미 원주권 10기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27일 원주 빌라드아모르에서 열렸다.

이날 개강식에는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태훈 원주부시장, 이재용 원주시의장,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권오광 강원경제진흥원장,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 진기엽 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 이상현 원주문화원장, 원은향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박창일 원주권 총원우회장, 김강북



2024 굿리더 아카데미 원주권 제10기 과정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원주 빌라드아모르에서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과 신입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희태

고문을 비롯한 선배 원우들, 10기 수강생들이 참석했다.

22대 총선 출마자인 원주갑 원장묵(더불어민주당)·박정하(국민의힘)

후보, 원주를 송기현(민주당)·김완섭(국힘) 후보도 참석했다.

이날 선배 원우들이 신입 회원들에게 장미꽃을 전달하며 아카데미 입학

을 축하했다.

경민현 사장은 “굿리더아카데미 원주권 10기 원우가 되신 것을 환영한다”며 “올해로 창간 32주년을 맞은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원주 미래를 이끌 새로운 리더, 특별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일 총원우회장은 “우리다같이 원우회의 힘을 빌려 원주 지역사회의 성장, 발전, 그리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원주권 10기 과정은 오는 4월 3일 ‘지방시대·특별자치시대, 강원도의 선택은?’ 특강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전문가와 교수진의 강의, 워크숍, 현장학습 등이 진행된다. 권혜민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8일 (목)

지역 11면



채수남 원주예총 회장 취임 채수남 제22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원주지회장 취임식이 최근 치악예술관 공연장에서 원강수 원주시장, 이재용 시의장, 원제용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28일 (목)

지역 13면



◇고성군산림조합(조합장:김영석)은 27일 산림조합 신청사에서 함명준 군수,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강대재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열었다.

고성군산림조합 신청사 개청

【고성】고성군산림조합이 신청사를 개청하고 새로운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입지를 다진다.

고성군산림조합은 27일 고성군산림조합 신청사에서 함명준 군수,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강대재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 기관·단체장,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열었다.

신축 청사는 35억원가량이 투입돼 1,450.1㎡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됐다. 1층 고성군산

림조합 금융을 비롯해 2층부터 5층에는 병원, 약국, 숲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영석 조합장은 “이번 신청사 개청으로 고성군 시가지 변화는 물론 조합의 이미지 변신을 꾀해 차별화된 서비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임산물직매장 설치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조합원들의 일자리와 소득원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열기자 history@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8일 (목)

사설/칼럼 19면

뒤늦은 세계유산조례 조기 정착을

-강원도 중장기 수립 철저하게, 산사·석탄유산 등재 촉진제로

강원 고유특성을 담은 글로벌한 역사 문화유산 및 산업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의미를 정립해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세계유산조례)가 심오섭·김길수 도의원 발의로 얼마 전에 제정돼 5월 17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강원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책무가 제도화된 만큼 조례 취지를 충분히 살려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책을 기획 수립해 조기에 정착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유산조례는 5년 단위로 중장기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기본방향과 사업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도민 참여 활성화 및 세계유산지구 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 교육 및 홍보, 기관 단체 간 협력 증진, 자원조달 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실천에 이르도록 세세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며, 전문화된 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사항 등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발의한 심오섭 도의원은 강원 유산의 잠재력과 가치는 그 어느 곳에

도 절대 뒤쳐지지 않고 가치 있는 유산들이 산재한 데도 발굴과 등재를 위한 준비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던 점이 항상 안타까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을 뿐 아니라 등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의 확고한 토대가 마련됐기에 그동안 정책 소외지대였던 세계유산 등재, 보존, 관리에 도가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은 전 세계를 통틀어 167개국 1121점에 달합니다. 국내에는 14점이 등재돼 있는데 도내는 조선왕릉에 속한 영월장릉이 유일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사고를 보유한 오대산 월정사와 영산회상도 등 정보를 간직한 설악산 신흥사 등은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모두 누락된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엔 태백시 주민들을 비롯해 폐광지 4개 시군 민간단체 중심으로 장성광업소 폐광 이후 수장하려는 중앙 움직임에 맞서 광업 시설 및 관련 유산을 보존 발전 활용도를 높여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자는 세계유산 등재 여론이 들끓습니다. 타 시도보다 뒤늦게 제정되긴 했으나, 마침 석탄산업유산 등재 여론이 높은 시기이므로 도민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촉진제가 돼야 합니다.

“종합 3위 달성 쾌거 5년 연속 홈경기서 이어가자”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를 달성한 강원특별자치도선수단 해단식이 2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도장애인체육회는 27일 김진태 도지사,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및 선수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강원도선수단 해단식을 가졌다.

선수 40명, 감독 및 코치 10명, 임원 및 보호자 36명 등 총 86명으로 구성된 도선수단은 이번 대회 7개 전 종목에 참가해 총 10개(금 5, 은 2, 동 3)의 메달과 종합득점 1만7,457점을 획득, 목표로 했던 종합 3위 달성에 성공했다. 박권일 도장애인체육회 휠체어컬링팀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대회 15연패를 달성한 도장애인아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도선수단 해단식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강원특별자치도 선수단 해단식이 2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김진태 도지사,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선수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이스하키협회와 대회 2연패를 달성한 도장애인컬링협회 등 2개 단체를 비롯해 총 40명의 메달리스트에게 포

상금(4,320만원)이 지급됐다. 민민홍 도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장, 김용관 도장애인컬링협회장, 대회 2관왕에

오른 빙상 박시우(도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선수 4명, 김정호 강원자치도청 장애인아이스하키팀 감독을 비롯한 지도자 5명도 포상금을 수상했다.

김진태 지사는 “장애인동계체전이 앞으로 5년 동안 강원도에서 열린다. 5년 연속 홈경기를 치르게 되는 셈이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재정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재웅 위원장은 “선수단 여러분이 일궈낸 자랑스러운 업적이 향후 강원 장애인체육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값진 도전과 빛나는 승리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순찬기자



28일 오후 2시 속초시 사회복지회관 2층 대회 의실에서 열리는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8일 (목)

경제 06면

정부 “첨단산업 지원 강화” 강원도 부푼 꿈

특화단지 기업 인센티브 검토
도, 바이오 단지 유치 도전장
지자체 11곳 신청, 상반기 확정

정부가 올해 지역별 투자확대에 나선 가운데 강원지역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강원은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를 신청해 이르면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27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 첨단전략산업 위원회’를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의결했다. 오는

2047년까지 68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 접수를 진행했고, 강원을 포함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정부는 선도기업 투자 계획, 기반 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강원지역에는 국가첨단·소부장 특화단지에 선정된 지역이 없기에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한총리는 “특화단지 인근 지자체도 기반 시설 구축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

체 간 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며 “4대 첨단산업에 대한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0% 증액하고 반도체 중심이었던 우수 인재 양성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강원지역을 포함한 전국 9곳의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올해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를 전년(9억 9400만 달러) 대비 11% 상향된 11억 달러로 설정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 입지 규제 해소, 개발 계획 변경, 인센티브

강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과 유턴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토지를 저렴하게 분양·임대하고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해 주택과 상업시설을 제공한다. 강원지역 경제자유구역은 휴양형관광·레저, 수소에너지, 첨단소재·부품 등이 있다.

앞서 춘천은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지로 선정돼 2033년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9364억 원을 들여 춘천 광관리 일대를 기업도시로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6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 정우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8일 (목)

지역 14면

‘단돈 1000원’ 삼척시티투어 내달 첫 선

10월까지 주 3회 운행

이용요금 6000원, 5000원 환급

관광지 요금·중식비 별도

단돈 1000원으로 삼척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삼척시티투어가 내달부터 운영된다.

시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요 관광지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역사·문화·관광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삼

척시티투어를 4월부터 10월까지 주 3회 운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이용요금 6000원 중 5000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높은 가성비 관광상품으로 운영된다. 관광지 요금과 중식비 등은 별도다.

금·토요일은 해양레일바이크와 해상케이블카를 연결하는 해안코스로, 일요일은 대금굴과 활기 치유의 숲 체험을 하는 내륙코스로 운행된

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현장감 있는 해설과 안내로 삼척의 역사 문화에 대한 관광객들의 이해를 높인다.

또 각 일정의 후반에는 최근 국보로 승격된 죽서루 홍보와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중앙시장과 청년몰, 대학로 주변을 연계해 지역에서의 소소한 체험과 경험을 제공한다.

삼척시티투어 이용은 홈페이지(www.samcheok.go.kr/citytour)를 통한 사전 예약과 잔여분에 대한 현장 신청으로 하면 된다. 주요 탑승

장소는 죽서루, 터미널, 쓸비치 삼척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용요금의 상당부분이 지역화폐로 환급되는 만큼 직접적인 지역 소비와 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비스 개선으로 동해중부선(삼척~포항) 철도개통 이후의 개별관광객 수요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정민 koo@kado.net

江原日報

2024년 03월 28일 (목)

경제 08면



“하면 이젠 강원” 정부 집중 육성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목적
내주 과수산업 경쟁력 대책 발표
도내 재배면적 10년 새 6배 증가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립 등 검토

강원지역이 대한민국 사과 생산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주 중 강원도를 사과 집중 조성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선한 기후와 천혜의 자원에서 자란 강원지역 과일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과일시장에서도 각광받고 있어 정부의 사과 집중 육성을 통한 강원농업의 ‘판도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과는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자라는 과일로 여겨졌으나 2010년대부터 기후변화와 재배농법 발전 등의 영향으로 주요 재배지가 강원 영서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양구 사과는 큰 일교차와 높은 해발고도 등으로 인해 독보적인 당도와 식감을 자랑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고지대에 위치한 정선에서도 높은 일조량과 청정한 자

연환경 등을 이용한 고품질 사과가 생산되고 있다. 도내 사과 재배면적은 2013년 212ha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217ha까지 6배가량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지역을 사과 생산 집중 조성지로 지정, 육성할 경우 최근 이어지는 고물가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여파로 각 지역에서 과일 생산량과 가격 변동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온피해 가능성이 적은 선선한 기후를 집중적으로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원 지역에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사과 생산량이 많은 정선·양구·홍천·영월·평창군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이에 발맞춰 육성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올해 초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품종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며 “농민 교육과 품종 보급 등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2024년 03월 28일 (목)

江原日報

지역 14면

동해시 노후 해안교 보행로 재설치

〈천곡동 덕곡천 하류〉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용역 C등급 평가

시 내달 중 재가설 계획... 행정절차 마쳐

【동해】동해시가 천곡동 덕곡천 하류에 설치된 노후 해안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행로를 철거 후 재설치한다.

1984년 준공된 해안교는 RC슬래브형식의 교량으로 지난해 해안교 보행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C등급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해 4월 붕괴됐던 경기 성남 정자교 보행로와 유사한 구조의 캔틸레버 형식으로 지어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가설벨트 설치 등 임시 보강 조치로 시설물 구조 안전에 중대한 결함은 없는 상태지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 다음 달 중 기존 보행로를 철거하고 길이 28.8m, 폭 4m 규모의 보행로를 재가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시 설계 등 재가설 공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다.

시는 교량 17곳, 육교 4곳 등에 대한 도로교량 안전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위험 징후 발견 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을 펼칠 예정이다.

장인대 시 건설과장은 “노후화된 해안교 보행로가 재가설되면 위험요인이 해소돼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행 불편으로 인한 민원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명록기자 amethy@**

2024년 03월 28일 (목)

江原日報

지역 15면

영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160명 투입

23명 입국... 6월까지 베트남·필리핀 차례대로 도착

지역 59개 농가 배치 예정... 농번기 인력난 해소 도움

【영월】영월지역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을 시작했다.

영월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번기 일손을 도울 지역 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23명이 입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베트남과 필리핀 91명 등 총 1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6월까지 차례대로 입국해 영월로 오게 된다.

이번에 영월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들은 지역 내 59개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입국 즉시 마약 검사, 산재 보험 및 의료공제회 가입, 근로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낮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이를 계기로

고용주당 2명의 근로자 추가 고용과 농·어업 종사입증서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신승규 군 농업축산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바쁜 농번기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5개월(3개월 연장 가능)을 고용해 지원하는 제도로 사전에 신청을 받았다”며 “고용 농업인과 계절근로자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안정적인 고용과 성실한 근로로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윤석기자 papersuk1@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8일 (목)

사회 05면

정부부처 엇박자 행정에 '서핑성지' 양양 명성 위기

공유수면 허가·처분 재량권 논란
감사원 "관리능력 상실 제재 필요"
군 "우수사례 평가, 현실 반영 해야"

감사원이 양양군에 대한 본 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서핑성지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서핑비치'를 비롯한 공유수면 시설물에 대한 점·사용허가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서핑비치의 경우 지난 2020

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정부 부처간 '엇박자' 지적과 함께 '표적감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부터 양양군에 대해 3차에 걸친 사전감사에 이어 27일부터 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플라이강원, 현남면 지역관광지 개발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과 함께 동해안 6개 시·군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내용 가운데 민간분야 허가현

황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양양군은 서핑비치를 비롯한 한 8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감사원은 그동안 현장답사를 통해 "양양군의 공유수면 허가·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여기에 "군 자체적 공유수면 허가 및 관리능력 상실로 제재가 필요하다"거나, 더 나아가 "군이 일부 민간업체 특혜 및 해당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군은 물론 주민 반발도 커

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양양군은 "모든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신규허가는 물론 기존 허가내용도 더 이상 연장해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자칫 지난 10년간 '서핑'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은 SNS 등을 통해 최소한 3년 정도는 소문이 나야 수익이 발생한다"며 "최근 허

가를 받아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허가가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과정을 지켜보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한때 감사원으로부터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던 곳이 이젠 '특혜'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구소멸로 젊은 층이 떠나고 있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법만 가지고 따진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출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최훈 choihoo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8일 (목)

지역 10면

춘천시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생길까

국방부, 도교육청 방문 이목 집중
한민고 설립시 기존학교 전환
시 "교육발전특구 시너지 기대"

국방부가 군인 자녀 학교인 한민고 설립 등을 검토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방문,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본지 취재 결과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한민고 설립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찾았다. 앞서 국방부와 교육부는 최근 협약을 맺고 파주에 설립된 군인 자녀 학교인 한민고를 다른 지역에도 설립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파주에 위치한 한민고의 경우 기숙형 사립고이지만 앞으로 새로 생기는

학교의 경우 자율형 공립고 형태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교원 100%를 초빙할 수도 있다.

한민고의 경우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입시 실적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신흥 명문고'로 꼽히는 곳이다. 국방부와 교육부는 새로 지정될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도 전국단위로 군인 자녀들을 모집하고 학교소재 광역지자체 거주 일반학생도 선발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춘천을 찾으면서 한민고 탄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방부 관계자도 최근 교육부와 의협약 자리에서 "춘천과 포항, 영천 등의 지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춘천의 경우 학교 신설보다는 기존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해

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 재학생들의 전학 문제부터 동문·학교 구성원들의 동의까지 통과해야 할 절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춘천시는 한민고 설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역 내 교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춘천에 한민고가 들어설 경우 인근 접경지역인 양구, 화천, 철원 지역 군인 자녀들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민선 8기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됐고 지역 내 대학 6곳을 보유한 대표적인 교육의 도시"라며 "지역에 한민고가 들어서면 기존 교육 자원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28일 (목)

사설/칼럼 19면

강원 인구 감소, 심상치 않다

-2050년 150만명 붕괴 전망... 국가 과제로 다뤄야

오는 2050년에는 강원 인구 150만명 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역 산업 기반이 허약한 데다, 일자리를 창출할 중견 기업이 부족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저출산과 젊은 층의 타지 유출은 인구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도세가 악화하고, 경제 규모는 축소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는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 지역 소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와 도내 지자체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단기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인구 감소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는 심각한 현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인구는 152만 500명으로, 1년 새 5500명이 줄었습니다. 귀농과 귀촌 등으로 2035년까지 153만 7000명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가속해 2050년에는 148만 2000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해 경제 활동 인구도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강원지역 출생아 수는 67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10년 전 1만 980명과 비교해 39.0%가 감소했습니다.

다. 도내 출생아 수는 2016년까지 1만 명 대를 유지했으나 2017년 8958명, 2020년 7835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합계출산율도 지난 2021년 처음으로 1명대가 무너졌고, 지난해엔 0.89명에 그쳤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 집중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경기 1379만 5000명, 서울 933만 8000명의 순으로 인구가 많았으며, 수도권의 인구는 2609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산업과 기업, 공공기관이 몰려 있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수도권 쏠림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강원 도내에서 인구 증가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인구 감소 지역의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정책이 중요합니다. 산업과 기업을 분산하고, 교통과 문화, 의료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지역의 공동화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28일 (목)

사설/칼럼 19면

‘강원형 반도체 육성 협약’ 성과 내는 것이 중요

김진태 도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이 지난 26일 충북 음성군 DB하이텍 상우캠퍼스에서 조기석 대표이사와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2023년 10월 삼성전자에 이어 DB하이텍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 10위 내의 대기업과 연이어 협력관계를 맺으며 강원형 반도체산업 육성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번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 협약은 지난해 10월 강원일보가 주최·주관한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포럼’이 그 매개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강원 연고

글로벌 기업인 DB하이텍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협업은 향후 상호 간의 특수한 관계인 만큼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

다. 더욱이 이날 협약에 따라 원주에 설립될 반도체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반도체산업 육성은 일도양단의 처방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분명한 방향성과 목표 아래 진정성과 인내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약에 참여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DB하이텍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행정적인 문제에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쏟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DB하이텍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DB하이텍은 강원 연고 글로벌 기업인 만큼 지역에 대한 애향심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DB하이텍이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 협약을 통해 교류와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확실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하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은 중첩 규제로 개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고, 삼척, 태백,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은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강릉, 동해,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지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그간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경제 회생 정책으로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이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고루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도체산업과 같은 전략적 사업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협약 내용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DB하이텍은 철저한 공조로 협약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원자치도·원주시·DB하이텍 협업

지자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진정성과 인내 갖고 상호 역할을 해내야